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11.27.(금)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11.27.(금)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	044-300-7180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청년희망내일센터, 이용 청년의 실제 취업 성과 점검 주문

내년 예산 8억 3,538만원 중 취업 지원 사업비 3억원…세부 프로그램 내실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110회 정례회 제5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청년희망내일센터를 이용한 청년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했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7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센터 예산은 약 8억 3,538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5억 3,538만원으로 64%를 차지한다. 취업 준비와 일자리 연계, 취업 후 정착을 지원하는 6개 사업에는 나머지 3억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자격시험 응시료와 진로 탐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청년키움카드와 관련해 “내년에는 청년 35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서만으로는 구직 준비를 마친 청년이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소개받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 기업이 어떤 인력을 찾고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 청년이 그 수요에 맞춰 교육받거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원하는 일을 미리 경험하고 실제 채용 기회까지 얻을 수 있도록 센터가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센터를 아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찾아와 이용하는지도 살펴달라”는 당부와 함께 “센터 이용률이 저조하면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 이후 일자리를 구했는지까지 확인해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